

# 제 1 교시 국 어

1.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문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 내일 이모랑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자.  
 동생: 이모와 함께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는 거야, 아니면 이모 선물과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는 거야?

- 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줄임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 ③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어를 남용하고 있다.
- ④ 상황에 맞지 않는 관용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2. 다음 중 '동생'의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동생: 주말에 친구들과 발표 준비를 해야 해서 못 가.

-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토론을 부탁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을 존중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3~4]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개요

주제: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과 의의**

- I. 서론: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 ..... ㉠
- II. 본론: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
  - 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 이용 ..... ㉡
  - 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
  - 다. 지역의 역사 알기 프로그램 참여 ..... ㉢
- III. 결론: 공정 여행의 의의 ..... ㉣

(나) 글의 초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 훼손하기도 하고 여행지 주민에게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과 지역에 유익한 공정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 여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한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 자가용으로 여행을 할 때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한다. ㉢ 그러나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 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공정 여행을 떠나 보자.

3.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4.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이'와 호응하도록 '훼손되기도'로 수정한다.
- ② ㉡: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잘못 사용된 접속 부사이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 ④ ㉣: 띄어쓰기에 맞게 '활성화하는 데'로 고친다.

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이 적용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ㅡ'가 탈락한다.

<보기>  
 ㄱ. (글을) 쓰- + -어 → 써 ㄴ. (잠을) 자- + -아 → 자  
 ㄷ. (줄을) 서- + -어 → 서 ㄹ. (문을) 잠그- + -아 → 잠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6.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규정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한글 맞춤법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① 고기를 깻잎에 싸서 먹었다.
- ② 보리와 쌀을 맷돌에 갈았다.
- ③ 너무 기뻐서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다.
- ④ 우리는 먼 훗날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7. 다음 높임법이 나타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 ②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 ③ 저는 어르신을 뵈 낮이 없습니다.
- ④ 아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드렸다.

8.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흙 ㉠·배이·셔·도  
 ㉡·ㅁ·춤·내제 ㉢·쁘·들시·러퍼·디·물흙 ㉣·노·미  
 하·니·라  
 -「훈민정음」 언해본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 ② ㉡: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자가 쓰였다.
- ③ ㉢: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 ④ ㉣: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지리 가지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희면<sup>1)</sup>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지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작자 미상, 「가지리」-

1) 선희면: 서운하면.

9.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 ③ 4음보의 율격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0. 다음 중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무능력한 모습을 조롱하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그’는 ‘임 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기지만 ‘임 씨’를 못 미더워 한다. ‘임 씨’는 시간을 더 들여 옥상까지 꼼꼼히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견적서를 받아 공사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sup>1)</sup>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sup>2)</sup>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찢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뼈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A]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써비스할 때는 써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중략)

임 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①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쳤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1) 견적: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림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 2) 노임: ‘노동 임금’을 줄여 이르는 말.

1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 씨’는 공사비를 수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 ② ‘아내’는 처음보다 공사비가 줄어서 놀라워했다.
- ③ ‘아내’는 ‘임 씨’에게 수정된 공사비를 주었다.
- ④ ‘임 씨’는 공사비를 받은 뒤 자리를 나섰다.

12.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13. 다음 중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 씨’에게 지불한 품값을 돌려받기 위해서
- ② ‘임 씨’에게 받은 분홍 편지지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 ③ ‘임 씨’가 공사 재료를 남긴 이유에 의구심을 느껴서
- ④ ‘임 씨’가 공사를 성실히 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서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sup>1)</sup>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1) 하냥: 늘.

14.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청자를 표면에 내세워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명령의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5. 다음 중 ㉠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감탄사를 활용하는 방법
- ②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
- ③ 앞 구절의 끝을 다음 구절의 처음에서 반복하는 방법
- ④ 모순된 표현 속에 삶의 진실된 의미를 담아내는 방법

16.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
- ②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는 삶
- ③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
- ④ 개인의 성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중시하는 삶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생은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 흥건적의 난으로 최 여인은 목숨을 잃지만 귀신이 되어 다시 이생 앞에 나타나고, 부부는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이생에게 이별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운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罪障)<sup>1)</sup>이 없음을 살피시어, 환체(幻體)<sup>2)</sup>를 빌려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시름을 달래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지요.”  
(중략)

“내 차라리 그대와 함께 황천<sup>3)</sup>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을 뉘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일 낭자가 아니었다라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낭자의 천성이 효순하고 착하며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소. 그러하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소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소? 부디 낭자는 인간 세상에 남아서 백 년 뒤에 ㉡나와 함께 흠이 됨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하였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여러 기(紀)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 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저에게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이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여인은 말하였다.  
“㉣낭군님, 부디 몸조심하세요.”  
말이 끝나자 여인은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종적도 없게 되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소 곁에 부장<sup>4)</sup>을 하였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애초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1) 죄장: 죄악이 좋은 인과응보를 얻는 데 장애가 됨을 이르는 말.  
2) 환체: 불교에서 덧없는 인간의 몸뚱이를 이르는 말.  
3) 황천: 저승.  
4) 부장: 합장. 여러 사람의 시체를 한 무덤에 묻음.

17.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행복한 결말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의인화한 대상의 시각으로 인간 세계를 풍자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18.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인’은 불효한 죄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 ② ‘이생’과 ‘여인’은 백 년 뒤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③ ‘이생’은 ‘여인’의 유골을 끝까지 수습하지 못하였다.
- ④ ‘이생’은 ‘여인’과 이별한 후에도 ‘여인’을 그리워하였다.

19.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열두 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간데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뜻이지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되, 그 외에 다른 우물도 넓게 팔 줄 아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 여러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 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섭(統攝)이라는 말은 원효 대사의 말에서 빌려 온 단어로, 사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단어의 뜻은 줄기 ‘통(統)’과 잡다 ‘섭(攝)’이라는 한자를 합쳐, 큰 줄기를 잡아 다루는 것, 즉 ‘전체를 도맡아 다스리다.’입니다. 이제 통섭은 바람직한 미래 학문 형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연 과학과 인문 과학, 사회 과학이 각자의 지식을 융합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요.

세상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지요.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격이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려면 결국 ㉢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섭형 인재는 ㉣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확실하게 있되, ㉤ 다른 전문 분야에도 충분한 소양을 갖추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 최재천, 『생각의 탐험』 -

20.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요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③ 글쓴이의 의견을 청유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21.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 ②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 ③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 ④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22.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 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이를 한마디로 ‘통(通)’의 원리라 ㉠ 부를 수 있다. ㉡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등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나)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 기후에 맞춰 집 안에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거시 기후란 계절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다.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어 가지 않도록 했다.

(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 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미시 기후란 숲과 산세, 지세와 물길 등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이다. ㉣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임수(背山臨水)<sup>1)</sup>는 미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안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 기후를 활용한다.

(라)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온다.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sup>2)</sup> 뒤에서 불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오게 된다. ㉤ 대개 대청 뒤에는 숲이 있는데, 이곳의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 임석재,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

- 1) 배산임수: 지세(地勢)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여 있음.
- 2) 대청: 한옥에서,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23. 다음 중 (가)~(라)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한옥의 다양한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 ② (나)와 (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한옥을 근거로 현대 가옥의 구조를 유추하고 있다.
- ④ (다)와 (라): 한옥이 한국인의 정서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24. ㉡~㉤ 중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가운데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다.

- ① ㉡                      ② ㉢                      ③ ㉣                      ④ ㉤

2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생일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 ② 어머니가 아이를 손짓하여 불렀다.
- ③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힘차게 불렀다.
- ④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